



天王星과 태 (상상도) *

“天王星의 發見과 태의 發見”

羅 逸 星

I. 天王星의 發見

1781年 William Herschel에 의해서 太陽系는 土星의 軌道밖으로 拡張되었었다. 그것은 太陽으로부터 28만6천9백만k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행성이 存在한다는 것이 發見되었기 때문이다. 独逸軍의 軍樂隊員 從軍하다가 無一 풀으로 英國으로 건너왔던 少年 William은 낮에는 教會音樂을 作曲하고 聖歌隊를 指揮하면서 音樂人으로서 바쁘게 지냈지만, 밤이면 望遠鏡을 製作하고, 自作한 望遠鏡으로 밝은 밤에는 별을 热心히 觀測하였다. 그가 남긴 大小의 望遠鏡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世人들의 칭송을 받고 있으려니와 觀測天文學者로서 이룩한 그의 업적은 現代天文學의 基礎가 되었음은 肉眼連星의 觀測과 目錄, 銀河系의 最初의 模型, 火星, 木星, 그리고

土星의 달들의 發見 등을 通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그는 有名의 音樂人으로서 아마추어 天文家로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1781年 3月 13日에 世上을 깜짝 놀라게 한 偉大한 天文學的 發見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土星보다 더 먼 궤도를 돌고 있는 새로운 行星의 發見이다. 그는 英國王室天文學會에 이 새 行星의 發見을 報告하면서 그 行星의 이름을 George星 정확하게는 Georgium Sidus이라 名命할 것을 提案하였다. George는 當代의 英國王이었고, 英國에서는 Herschel의 提案에 따라 George星으로 1850年까지 通稱되었으나, Bode의 제안에 의해 Saturn(토성)의 아버지인 Uranus(天王星)로 獨·佛을 위시한 구라파 學者들이 부른 것이 오늘날 世界에서 共認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木星型 行星인 天王星이란 어떤 行星인가 물론 앞으로 天王星의 엄폐를 통해서 많은 값이 달라지겠지만 最近의 자료를 教科書에서 찾아보면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

公轉週期 84.01年

궤도장반경 $2,869 \times 10^9$ km (19.2 AU)

이심율 0.047

黃道傾角 $0^\circ 77$

自轉週期 $10^h 49^m$ Retrograde

自轉軸이 공전궤도면과 만드는 角 98°

質量 569×10^{24} kg (지구질량의 95倍)

赤道半徑 57,550km (지구의 9.01倍)

平均密度 0.71

Albedo 0.50

扁偏度 0.06

表面溫度 95°K

달들 5個 (Miranda, Ariel, Umbriel, Titania
 17^m 14^m 15^m 14^m)

Oberon 의 궤도 128,000 — 568,000km
 14^m

II. 天王星에 의한 별의 엄폐

달이나 行星, 그리고 行星의 큰 달들이 그들의 軌道를 運行할 때 먼 곳에 있는 별들을 가리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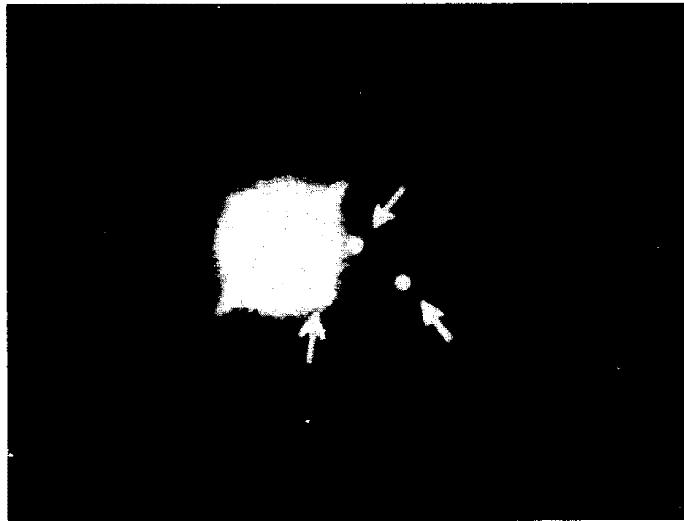
가 있다. 이것을 엄폐 (occultation) 라고 부르는데, 달에 의한 엄폐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行星이나 行星의 달들에 의한 엄폐는 드물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角度도 전 行星들의 視直徑이 달의 視直徑(약 $30'$)에는 比較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들의 빛을 막을 만한 크기로서는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行星들에 의한 엄폐는 몇 年에 한번씩豫告되어 왔다. 이豫告를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계산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그豫告에 따라 天文學者들은 관측했고, 그豫告가 正確했다는 것이 그때마다 立證되었었다. 그런데 이런豫告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는 英國 Greenwich 천문대의 Gordon Tayler이다. 이 Tayler가 다시 1973年에 가장 크게 보여야 角度로 不過 $3.^{\circ}6$ 밖에 되지 않는 天王星이 9 등성인 赤色巨星 SAO 158687을 엄폐할 것이라고豫告한 것이다. 엄폐하는 日字는 1977年 3月10日, 觀測이 가능한 곳은 Australia 西部, 印度, 그리고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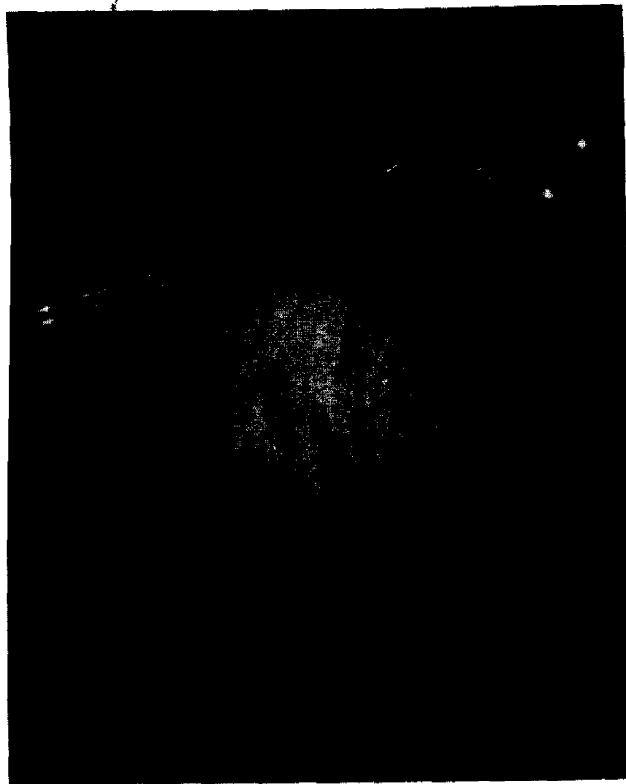
이 發表가 있은 後 主로 美國의 天文學者들은 이機會에 天王星의 表面溫度, 大氣의 壓力와 化學組成, 그리고 여러 天文臺에서 觀測이 可能하다면 天王星의 直徑과 扁偏度를 조사해 보려고 4年間 準備하여 왔다.



天王星과 그 위성들 (Abell著 Exploration of The Universe P316에서 轉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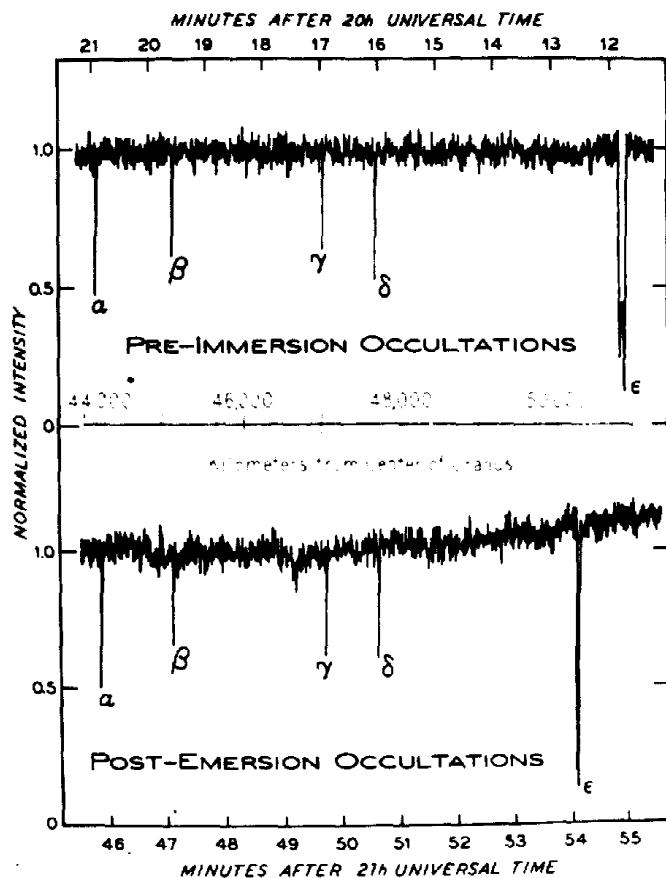
天王星의 크기와 태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



3月10日 地球에서 본 天王星과 SAO158687 의
그림으로 KAO 탐험원과 Perth의 관측자에게 보인
天王星차에 대한 SAO 158687 의 상대적 進路. *

마침내 今年 3月10日 기다리던 날은 왔고, 觀測은 成功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本來 目的했던 위에서 열거한 연구를 위한 관측 결과는 정리 중에 있으므로 發表되지 않고 있지만, 全然 뜻밖의 현상이 發見되었다. 그것은 天王星도 土星과 같이 태를 가지고 있다고하는 사실이다. 이 새로운 發見에 關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기 前에 이 관측이 준비되고 진행된 과정을 잠간 이야기 해보자.

Taylor의 豫報가 發表되자 即時 몇個의 觀測 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첫째로 Cornell 大學팀 (J. L. Elliot, E. Dunham과 D. Mink)은 C-141機를 改造한 Kuiper Airborne Observatory(以下 KAO로 略稱)로 印度洋上空에서 地球大氣의 75%를 피할 수 있는 高度로 비행하면서 觀測하려



Cornell大学의 Elliot 구루이 3月10日 얻은 SAO 158687의 光電測光 光度曲線. 엄폐前(上)과 엄폐後(下)는 그모양이 서로 애칭을 이루고 있고 下의 마지막 部分의 上昇 경향은 아침 여명 때문이다. *

고 준비하였다. 이 비행기는 NASA의 Ames Research Center가 마련한 것이며, 그 機體內部에는 6190Å, 7280Å, 그리고 8520Å의 3色을 同時에 測定할 수 있는 高性能 測光器를 附着시킨 91cm KAO 望遠鏡이 設置되어 있다.

둘째팀은 미국의 Lowell天文臺(R. L. Millis와 L. H. Wasserman)과 호주의 Perth天文臺(P.V. Birch)의 합동으로 호주의 西部에 있는 Perth天文臺에서 관측하도록 준비되었다. 이 팀은 61-cm망원경에 8500Å 파장영역을 測定할 수 있는 測光器를 사용하였다.

셋째와 넷째 관측팀은 둘다 인도팀으로서 Indian Institute of Astrophysics (J. C. Bhattacharyya와 K. Kuppuswamy)와 Naini Tal에 있는 Uttar Pradesh天文臺(S. K. Gupta와 H. S.

Mahra)이다. 그 외에도 個人的으로 獨自의 인觀測을 수행한 사람으로서는 J. Churms(남아인방의 Cape Town 天文臺)와 Perth 天文臺에서 관측한 B. Zellner III (미국 Arizona 大學)가 있다.

III. 天王星의 테

KAO에 탑승한 Cornell 大學의 Elliot의 팀은 3月10日 20^hUT에 赤色臣星 SAO 158687을 望遠鏡의 視野에 포착하고 그별의 빛의 強度를 測定하고 있었다. 이 時刻은 이미 天王星의 가장 内側을 돌고 있는 달인 Miranda(天王星에서 128,000km되는 궤도를 돌고 있음) 보다 훨씬 天王星에 接近되었던(約 60,000km) 때였다. 20^h12^m UT 되기 몇 秒前 갑자기 빛의 세기는 約 90%나 줄어들었고 그 상태가 約 6 秒동안 持續되었다. 다시 빛의 세기는 原狀態로 되돌아 갔다. Elliot과 그와 함께한 다른 두 사람은 分明히 Miranda보다 더 内側을 돌고 있는 未知의 달이 SAO

158678의 빛을 차단(엄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로 부터 約 4 分後에는 또 다른 減少가 記錄되었고, 天王星에의한 엄폐가 있기 前까지 3個의 減少가 더 記錄되었다(앞에서 오른쪽 그림 참조).

Elliot는 이 뜻밖의 發見을 비행기에서 Smithsonian 天体物理研究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B. Marsden에게 無電으로 알렸고, 이날 Marsden은 IAU Circular에 未知의 天王星의 달 發見이라고 打電하고 全世界에 알렸다(아래 그림 참조).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Elliot 등 Cornell 팀의 비행기가 호주에 아침 9시30분에 착륙했을 때 Millis의 팀이 비행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Elliot가 Millis에게 물은 첫마디는 “당신네들은 몇개의 달을 발견했소?” 였다.

두팀은 관측 기록을 싸들고 바쁜 걸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관측자료를 제각기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쳐트에 기록된 5번의 빛의 감소는 天王星의 엄폐를 전후하고 똑같이 반복되었는데 그 순서가 정반대일뿐, 時間간격이 꼭 같았다. 이것은 分明히 未知의 달들의 所行이 아니라 배의 發見이었다.

Elliot는 가장 암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 5개의 테를 차례로 α , β , γ , δ , ϵ , 이라고 命名했다.

가장 넓은 테는 第一처음에 엄폐한 바깥쪽의 ϵ 으로서 6 秒間이라는 것은, 그테의 넓이가 50~100km가 되는 것이라고 Marsden은 계산했고, 다른 4개의 테는 그보다 훨씬 좁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Elliot는 天王星의 그림자가 지구 표면을 지나가는 속도가 약 12km/sec 이므로, 좁은 테들의 넓이는 불과 12km안팎이 될 것이며, ϵ 테만은 天王星의 엄폐前에서는 約 85km이고, 엄폐 후에는 約 35km가 된다고 계산하였다. 한편 天王星의 바깥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α 테의 경우 45,000km이고 ϵ 테는 52,000km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Millis의 팀은 beamsplitter의 고장으로 δ 와 α 테를 놓쳐 버렸으나, α 테와 天王星사이에 2개의 감소를 더 관측하였다. 따라서 테의 수는 7개가 될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8번

Circular No. 3047
Central Bureau for Astronomical Telegrams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Postal Address: Central Bureau for Astronomical Telegrams
Smithsonian Astrophysical Observatory, Cambridge, MA 02138, U.S.A.
Cables: SATELLITES NEWYORK Telex 921428 Telephone 18171 884 6758

OCCULTATIONS BY URANUS AND (6) HEBE
R. Barrow, Gerard P. Kuiper Airborne Observatory, has relayed word from Perth of successful observations by J. L. Elliot in the southern Indian Ocean of last night's occultation of SAO 158687 by Uranus. A secondary occultation was also observed, this presumably being caused by a small body (not Miranda) in orbit about Uranus. J. Hers reports that heavy rain prevented observations in the vicinity of Johannesburg.
Preliminary reports reaching D. Dunham,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 suggest that the central line of the occultation of γ Cet by (6) Hebe passed between 50° and 90° to the north of Mexico City. Near the latter during the event lasted 55", beginning on Mar. 5d09h34m45s UT. A 24"-duration occultation was observed in Mexico City itself.

COMET LOVAS (1977c)
Yamamoto Circ. No. 1847 and Orient. Astron. Assoc. Comet Bull. No. 144 give the following approximate position by M. Kojima:
1977 UT α_{1950} δ_{1950} μ
Feb. 24.62396 $10^{\circ}30'06''$ $+34^{\circ}57'$ 16
The image is diffuse, without a tail, and the position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data on IAU 3042. Subsequently, however, a report from the Tokyo Observatory casts doubt on the reality of this image and notes that T. Seki failed to find the comet near the expected position. Observations are urgently desired.

A1540-53

P. J. N. Davison, University College, London, writes that news of his discovery of an X-ray pulsator near 30 1538-52 (cf. IAU 3039) was contained in a preprint issued in Nov. 1976 (Monthly Notices Roy. Astron. Soc., in press). The observation was made on 1976 Sept. 6-7, and the period was determined to be 52037 ± 054 . The best estimate of the source's position, $\alpha = 15h41m2s$, $\delta = -53^{\circ}4$ (equinox 1950.0), is $> 1''$ from 30 1538-52, which appeared to be at an intensity well below that given in the Uhuru catalogue. The 90%-confidence box for A1540-53 is a 0.5×0.2 ellipse, the major axis being approximately in the direction of 30 1538-52.

1977 March 11 Brian G. Marsden

Elliot의 뜻밖의 발견을 全世界에 알린
IAUC 3047.



관측을 마치고 돌아와 KAO 원예선 Cornell 大學 팀과 KAO 컴퓨터 조정자, 원쪽으로부터 Doug Mink, Ted Dunham, Tom Matheson, Jim Elliot *

째 네일런지 모르는 기록이 ε 태 밖에서 J.Churms (남아연방)에 의해서 보고 되고 있다.

어느 태전간에 별빛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없다. ε 태의 경우는 가장 많아서 90%의 빛을 차단 했지만, 다른 4개의 태는 모두 50% 안팎이다. Millis 가 추가하고 있는 2개는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다.

IV. 마지막으로

天王星의 태는 별에서 오는 빛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發見되었다. 그렇다면 이 태들은 태양 빛을 반사할 것이므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태들은 天王星으로부터 角距離가 數秒되는 곳에 있으므로 그 투영된 총면적은 天王星의 1%에 해당할 것이다. 만약 이 태들의 반사율이 土星의 태와 같다고 가정하면, 天王성이 가장 어둡게 보이는 파장영역으로는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天王星의 대기는 메타깨스가 主成分 이기 때문에 메탄까스에 잘 흡수되는 광선으로 보면 天王성이 어둡게 보일 것이다. 이 파장영역의 광

선이 바로 天王星의 태를 볼 수 있는 광선이 될 것이다. 天王星의 반사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메탄 흡수대인 8860Å의 빛으로 태를 찾아 보려고 Arizona 大學의 B. A. Smith 는 試圖해 보았다. 그러나 決果는 否定的이다. Smith 는 그 理由로서 태는 石炭 정도의 반사율(약 3%)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土星의 태는 太陽光線을 잘 반사시키는 어둠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根本的으로 다른 物質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회전 Marsden 은 天王星의 태는 太陽系의 年齡에 比해 보면 比較的 새로 생긴 것으로서 永年 으로 보아서는 不安定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太陽系의 領域을 越여 越던 이 行星은 Herschel 의 發見以來 196年만에 새로운 큰 課題를 우리들에게 안겨 주었다.

天王星을 위해서는 福徳 해, 1977年!

〈연세대학교 천문대 교수〉

본문에 사용된 그림 중 * 표된 것을 Sky and Telescope 53(6), 1977에서 인용거재 한 것임.